

##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1. 성낙소 목사의 구세군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로, 출생을 1893년(명치 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명치 33년(1900년) 3월부터 45년(1912년) 11월까지 한문수학, 대정 4년(1915년) 11월부터 5년(1916년) 8월까지 경성 구세군사관학교 졸업,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역자주: 아현동 경성성서학원), 대정 5년(1916년) 9월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임명, 대정 6년(1917년) 3월 중위(부위) 임명, 대정 7년(1918년) 4월 대위(정위) 임명, 대정 15년(1926년) 1월 구세군 사관직 사임, 소화 5년(1930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횡빈(요코하마)교회 주임목사 임명, 소화 6년(1931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선교 기독교회 관리 목사 임명 파송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소위로 임관되었다.

구세군은 1915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삼용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 사관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12월 28일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성낙소(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거주)의 포교계(布教區)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090호 3, 5면(대정 5년 3월 25일)>.

구세군은 1916년 4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 옥북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이근종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194호 6면(대정 5년 7월 26일)>.

구세군은 1918년 1월 31일 삼룡리 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 구포교자 성낙소)에 신병군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28호 11면(대정 7년 5월 13일)>,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성낙소의 거주지를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58호 7면(대정 7년 6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신병군)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772호 4면(대정 7년 7월 3일)>.

구세군은 1919년 2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오순준(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18의 1번지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2028호 10면(대정 8년 5월 16일)>, 동년 3월 5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성찬),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황두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학동)에 성낙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50호 12면(대정 8년 6월 11일)>.

그리고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일)>. 이후 1933년 2월 28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안교철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1935호 5면(소화 8년 6월 23일)>, 1935년 8월 17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허영(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제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9호 5면(소화 10년 11월 11일)>.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구세군이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가라는 점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9-12쪽)>을 보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고, 이듬해인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의 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선포에 의하여 기미년(1919) 3월 1일에 대표자들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독립만세를 전국적으로 호창할 때에 성낙소 자신도 때가 왔다고 하면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 전주 지방령(전주지방영) 구세군에서 영동지방령(영동지방영) 영국인 쏘세벨 보(소서별 지방관의 보좌)로 영전되어 영동읍으로 이동하고 지방유지와 청년들을 망라하여 영동에서 독립만세를 전 시민들이 호창한바 일병에게와 경찰대에게 사망한 사람이 21명이요, 중상자가 수십 명이였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선동자 중의 한 사람이 성낙소 자신임을 눈치 챈 일경을 피하여 즉시로 구세군 복장을 벗고 변장

하여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경성 수창동 어느 과부 집에 잠복하여 만주와 상해로 몇몇 동지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동지 중 한 사람이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고 피신책으로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성경을 수양겸 숙독하는 중에 급기야 신앙의 싹이 나고 과거 생활을 회고한 즉 선악을 양심적으로 비판하면 선과악다(善寡惡多)하여 인격적으로나 종교도덕적으로나 탐욕적인 동시에 신앙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장지성중(將止城中) 시민으로 생활한 것을 대 각성하여 성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에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광재근 목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로 기차를 타고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그러나 성낙소 자신은 양심적으로 생각한 즉 신앙의 생활과 신성한 교역자의 생활을 하는 동시에는 명량한 신분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과거 구세군 교역생활의 부족과 신분상 결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성경상으로도 신앙적으로 진선진미(眞善眞美)로 알고 구세군 단체에서 다시 신앙생활로부터 최하로 시작하여 하사관을 경유하여 완전한 복직으로 정사관이 되어 신분을 회복한 후에 당당한 교역자인 것을, 상제(上帝)전에는 신앙으로 철저한 회개자복을 하여 죄를 사유함 받고, 단체적으로는 복직함으로서 신분이 보증되었다.

광재근 목사는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1922년 함경남도 북청으로 파송받기 전까지 1916-20년 사이에 부여군 금천과 홍산에서 사역하였고, 1920년 대전교회, 1921년 부강교회에서 사역하였다.<활천(정상운, '겸손과 온유의 목회자 광재근 목사,' 572권 7호, 2001, 29-31쪽)> 성낙소 목사도 1915-17년 사이에 부여군 구세군교회들에서 사역하였으므로 광재근 목사가 자신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분이라고 기술한 것과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다는 것과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 즉 아현동에 있었던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광재근 목사의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고 기술한 성낙소 목사의 이력서와 자서전의 내용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 계 계출

독립만세운동사건으로 구세군에서 포교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1920년 8월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됨으로써 다시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자서전(13-14쪽)>.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교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배삯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을 만났다. 이날은 커닝햄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성낙소는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教會)를 맡기로 하고 먼저 요코하마로 떠났고, 뒷날 요코하마 출항부두에 나가 커닝햄 가족을 환송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박흥순 목사를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중병 때문이었다.

성낙소는 <자서전>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교의 교회라 함은 각 교파도 기독교의 교회이니, 기독교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이며, 기독교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 선교회(東京四谷宣教會) 기독교의 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제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교의 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旣成)한 교회였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로 적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에서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례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면서 요츠야선교부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홍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종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문 부 성

관종34호

1932년(소하7년) 7월 11일

문부성 종교과

조선총독부 귀중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제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며, 이것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 3.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송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월 14일)하였고,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리사무소위치를 송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번지에 있었다. 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소를 뒤야했기 때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

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 8년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제출하였다.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친 요츠야선교회의 열매는 성낙소가 제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이뿐 아니라, 성낙소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은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랐고, 이인범 목사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보고하여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든 내용들과도 크게 달랐다.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교회들이 훨씬 많은 총 12개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신고 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숫자는 총 3개뿐이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되었다[<소화 9년 3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

부,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272-276쪽];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부, '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 102-103쪽].

성낙소는 1932년 12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송4동 4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로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변경계를 제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

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제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임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6월 5일 조선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인천 기독교회 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였다. 이인범은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로 바꿨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제출<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하고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커닝햄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 4.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에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적선정 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지만, 이름만큼은 경성교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서훈련원에 출석하여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 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 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4)'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치안정황> (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아래의 사진들은 위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써 총 10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상기 명의 자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朝鮮總督府  
7.8.26  
官報掲載

教規別途係管

未  
完  
結  
申  
種

施行月日  
昭和七年八月廿六日  
昭  
和  
七  
年  
八  
月  
六  
日  
接  
受  
關  
係  
番  
號  
社  
第  
一  
六  
九  
號  
海  
關  
七  
年  
八  
月  
廿  
六  
日

主務 學務司  
社會課長  
主任

總督 朱

政務總監 東京在

文書課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布教管理有設置局三關スル件

伺

京畿道京城府崇四洞四番地成樂伯スルニ

昭和七年八月廿六日

0121

第250號

ヨリ首題ノ届書別紙ノ通り提出シタル處同派ノ我  
 ガ國ニ於ケル本部ハ内地東京中ニ所在ニ此度其  
 ノ延長トシテ布教致度ニシテ趣ニ付為念文部  
 省へ照會致シタル處理ニ基督教會ノ一派トシテ  
 取扱ヒ布教並教會等ニ付テ之夫々正當ノ手續ヲ了  
 シ布教シツアル趣ニ付右受理ノ上左案ノ通り公告  
 相成可然故相伺フ

○官報掲載案

◎布教管理有設置届ヲ提出シタルモノ左ノ如シ

昭和七年 六月二十日	出 年 月 日	届 出	布教管理有設置届	提出シタルモノ左ノ如シ
東京基督教會	東京基督教會	東京基督教會	東京基督教會	東京基督教會
成	樂	紹		

文 部 省

官宗三四號

昭和七年七月十一日

文 部 省 宗 教

朝鮮總督府

御 中

六月二十七日付ヲ以テ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ニ關スル件御照會ノ處右宣教會ハ當局ニ於テハ基督教會ノ一派トシ取扱ヒ居ルモノニシテ御申越ノ如ク基督教ノ一派トシテノ承認ハ法規上其ノ手續等定ナキモ布教並教會等ニ付テハ各々其ノ手續ヲ了シ布教シツ、アルモノニ有之右同答候也



25<1> 0193



今般内地ニ於ケル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  
 教會ノ延長トシテ朝鮮ニ布教管理者ヲ置  
 キ其ノ布教ニ從事致度旨届出タル者有之  
 同人ノ申出ニ依レバ該派ノ總本部ハ米國紐  
 育ニ在リ教派名ヲ單ニ *Church Mission* 號  
 シ我が國ニ於テハ東京市四谷區仲町六番地ニ  
 東洋本部ナルモノヲ置キ其ノ教派名ヲ東京  
 四谷宣教會基督教會 *The Yamanote Mission*  
 稱シ基督教ノ一派トシテ正規ノ手續ヲ  
 了シ布教シツツアル趣右ノ果シテ事實ナルヤ

(山口)

0125

取調何分、御回答相煩度尚教規、類保  
せし御送附相成度、

7.6.11

7.6.11

通事 學務 總務

0127

布教管理者 敬呈 呈 仰

今據布教管理者之請求致候之付布教規則第七條  
第三項。依之七祀事項。具之此候及御石候也

昭和七年六月十一日

茨城縣 茨城郡 水戸市 水戸會

水戸會

水戸總督府  
7.6.11  
社會課

朝野總督

敬

現

水戸會

一 宗教及其教派 一 茨城縣會堂教會基督教會

二 宗教 (別錄之以下提出)

三 布教所。於之ル統教

四 巡迴布教 爲之ル巡迴之傳達請原之八會總會。又及會

五 家庭傳道 本朝訪問之之至者。於之ル八所教會之之

六 通信布教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七 路傍傳道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八 布教管理者之權限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九 布教監督之方法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十 布教管理事務所之位置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十一 布教管理者之姓名 本會所有之者。於之ル八所教會。又及會

以上

茨城縣 茨城郡 水戸市 水戸會

水戸會

履歷書

本籍 志清南道徒餘郡世道面花樹里參西巷地

現住 京城府柴田洞四巷地

姓名

張榮錫

明治三十六年五月拾六日生

學經歷

明治三十六年九月三日 同四拾五年拾壹月 漢文修業不  
大正四年拾月三日 同五年八月 京城教育會 官立學校修業不  
大正九年八月三日 同拾壹年春月 京城法政講習所 修業不

教派於此任先事項

大正五年九月 京城學士官少尉 任命不

大正六年春月 同 中尉 任命不

大正七年四月 同 大尉 任命不

大正十五年九月 同 官職了辭不

昭和五年拾壹月 東京四谷區教會 基督教會 福音教會 主  
任牧師 任命不

昭和六年拾壹月 同教會 朝鮮基督教會 教會 管理牧師  
任命 派遣不

賞罰共三事之

右之通相違無之候也

昭和七年六月

張榮錫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61  
 W. D. CUMMINGS, Director  
 TOKYO, JAPAN. *W.D.C.* 1882

No return is more concerning.  
 This is I say that Mr. Park do bring  
 of 127 items, should, is our marker in  
 have missed of Mr. Henry from Park.  
 W.D. Cummings, Director.

身分証明書  
 京城桂田(元)  
 右者在朝鮮帝教會役者  
 九二下  
 近于朴映順(元) 其の所有  
 一九二一年二月八日  
 中東回谷教會(元) 役者  
 宛 宛  
 宛 宛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9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Feb. 5 1932

0130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say that Mr. Pak So Sung  
 of 127 Keiso, Seoul, is our worker in  
 Korea instead of Mr. Hwang Soon Pak,  
 W. D. Cunningham.

身分証明書  
 京城桂川  
 右者在朝鮮當教會教役者  
 在子夕  
 追々朴興順(三)無名何者  
 凡三十一日  
 中書回谷教會(三)校  
 現也 各二六三三

0129